

# 언론중재 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박 중 호

(전 청주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제도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제도는 언론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구제제도이다. 조정과 중재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인 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21조의 규정과 같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하되(언론의 자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는 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공적인 책임)는 것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 것은 당연하다.

언론은 국가경영, 지역개발 그리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보전달 수단이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의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이 이를 잘 증명한다. 이렇듯 언론은 그 어느 것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중요한 만큼 그 영향력도 대단하다. 그렇기에 언론은 ‘권력의 제4부’ 또는 ‘무관(無冠)의 제왕’이라 불리고 있다. 언론은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자칫하면 그 힘을 이용, 본래의 임무를 이탈하여 국민의 명예나 권리 그리고 인격을 침해하기 쉽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동기이다.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법이 제정·공포되자 언론계의 일각에서 던진 “그동안 기자들이 누리던 태평성대는 끝이 났다.”느니 “언론은 지금까지 누리던 절대강자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등의<sup>1)</sup> 말들은 언론

1) 박중호. “공동선의 깃대”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회보, 2005. 11. 22.

의 자유가 얼마나 컸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언론이 가지는 공적인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단 한사람이라도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또는 인격에 손상을 입는다면 언론은 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언론중재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사후라도 침해된 명예와 권리 그리고 인격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보다 공적인 책임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철학적 기초로 삼고 언론중재에 임하여야 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성, 공공성, 책임성, 중립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철저히 따지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무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려 하여도 독자나 국민들이 언론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제도의 효과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가치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을 상대로 언론중재제도의 목적과 내용 및 절차를 자세하게 알리는 홍보에 진력하여야 한다.

## II. 언론중재제도

### 1. 탄생과 변천

‘언로(言路)가 뚫려야 한다.’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국민이 주인 된 자리를 말할 때마다 등장되는 말이다. 이 말은 언로가 뚫리고 정보가 공유될 때만이 국민이 존재하는 국가, 인류가 존재하는 세계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언론은 정보공개 의 수단인 점에서 그 자유가 강조된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기본법인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시대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성숙되고 국민의 수준이 향상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물결에 부응하여 언

---